

상승세 SSG-키움 격돌...주말 '잠실 라이벌' 첫 대결

SSG 13승 1패로 단독 선두...키움 10경기 8승 2패
두산, 잠실 라이벌간 상대전적서 2016년부터 앞서

시즌 초반 상승세를 자랑 중인 두 팀이 인천에서 격돌한다. 선두를 질주 중인 SSG 랜더스와 지난해 연승 가도를 달린 키움 히어로즈의 대결이다.

SSG와 키움은 19~2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3연전을 치른다.

SSG는 개막 이후 14경기에서 딱 한 번 졌다. 2위 LG 트윈스(10승 4패)에 3경기 차로 앞선 선두를 질주 중이다.

SSG는 2일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부터 13일 잠실 LG전까지 개막 10연승을 질주했다. 14일 LG전에서 오심 속에 패배해 연승 행진을 마감했지만,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다시 연승을 달렸다.

투타에서 좀처럼 구멍이 보이지 않는 SSG다.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에서 2.14로 1위고, 팀 타율에서 0.267로 1위, 팀 OPS(출루율+장타율)에서 0.737로 1위다.

월머 폰트, 이반 노바, 김광현, 노경은, 오원석으로 이뤄진 선발진이 연일 호투를 선보이고 있다. 마무리 투수 김택형을 비롯한 불펜진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간프로야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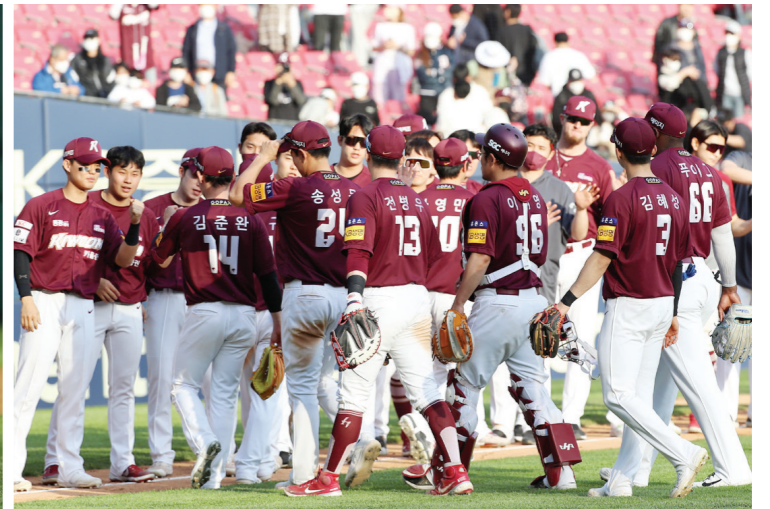
▲4월 19일~21일
한화-롯데(사직) KT-LG(잠실) 두산-KIA(광주) 삼성-NC(창원) 키움-SSG(문학)

▲4월 22일~24일
KIA-키움(고척) LG-두산(잠실) 롯데-삼성(대구) NC-KT(수원) SSG-한화(대전)

타선에서는 '캡틴' 한유성이 타율 0.404 2홈런 21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외국인 타자 케빈 크론도 3홈런 12타점으로 제 몫을 해주고 있다.

키움의 기세도 만만찮다. 키움은 8일 대구 삼성전부터 15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까지 7연승을 질주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한 키움은 9승 5패로 3위에 올라있다.

키움의 마운드도 SSG 못지 않게 탄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팀 평균자책점 2.34로 SSG에 이어 2위다.



1선발로 낙점한 안우진이 3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0.90으로 에이스다운 활약을 펼치고 있고, 최원태도 3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자책점 1.13으로 안정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SG는 키움과의 3연전에 오원석, 폰트, 김광현을 차례로 투입할 전망이다. 키움은 정찬헌, 안우진, 타일러 애플러가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투타 맞대결도 눈길을 끄는 요소가 있다. 2020~2021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돌아온 김광현과 키움 간판 타자 이정후, 아시엘 푸이그의 맞대결이다.

이정후는 2017~2019년 김광현을 상대로

타율 0.526(19타수 10안타)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김광현과 푸이그의 투타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말에는 잠실에 눈길이 쏠린다. 잠실을 함께 홈으로 쓰는 '한지붕 두가족' 두산과 LG가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친다.

시즌 전 우승 후보로 꼽힌 LG는 10승 4패로 2위다. 두산은 지난 겨울 전력 누수가 있었음에도 8승 5패로 4위에 자리하고 있다.

두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LG와의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점했다.

2016년 9승 7패, 2017년 9승 1무 6패로 앞섰고, 2018년에는 15승 1패로 압도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0승 6패, 9승 1

무 6패로 두산이 앞섰다. 지난해에는 두산이 7승 3무 6패로 근소하게 앞섰다.

두산과 LG는 2015년에는 8승 8패로 호각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LG가 두산을 8승 1무 7패로 눌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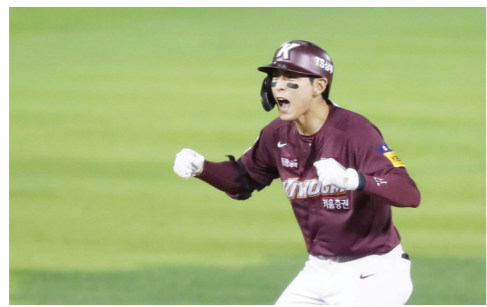
객관적인 전력에서 두산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LG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두산전 우위를 노린다.

시즌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2021년 우승 팀 KT 위즈는 주중에 LG를 상대한 뒤 주말에 홈에서 NC를 만난다. KT는 3승 10패에 머물고 있고, 2020년 우승 팀인 NC도 3승 11패로 한화 이글스와 함께 공동 최하위다.

뉴스

키움 이정후, 최연소·최소경기 1000안타도 갈아치운다

통산 900번째 안타 달성...KBO 역대 최연소·최소경기 달성



2017년 데뷔 시즌부터 남다른 타격감을 자랑했던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가 KBO리그 역대 최연소·최소경기 1000안타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정후는 지난 1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해 팀의 6-2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이정후는 통산 900번째 안타를 결승 적시타로 장식했다. KBO리그 역대 최연소(23세 7개월 28일)이자 최소경기(670경기)로 달성

한 900안타였다.

이정후는 '국민타자' 이승엽의 최연소(24세 9개월 13일) 기록을 뛰어 넘었고, 자신의 아버지인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최소 경기(698경기) 기록도 경신했다.

이정후는 2017년 데뷔 첫해부터 1군 무대를 호령했다. 타율 0.324(552타수 179안타)를 기록해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신인 시절부터 콘택트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고, 속구에 대응하고, 변화구에 대처하는 스윙이 나무랄 데가 없었다.

이정후는 매년 160개 이상의 안타를 때려내면서 한국 최고의 고타자로 우뚝 섰다. 2019년에는 193안타를 날리는 등 200안타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정후는 지난해에는 데뷔 첫 타격왕(타율 0.360)에 올라 사상 최초 '부자 타격왕'의 진기록도 썼다.

KBO리그 최고의 타자로 성장한 이정후는 이제 최연소·최소경기 1000안타를 바라보고

있다.

최연소 1000안타 기록은 이승엽(25세 8개월 9일)이 갖고 있다. 이정후가 올해 1000안타만 더 치면 이승엽의 기록은 가볍게 뛰어넘는다.

이종범의 최소경기 1000안타 기록(779경기) 경신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기록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정후가 108경기 안에 100안타를 때려내야 한다. 이정후가 슬럼프 없이 현재와 같은 타격감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정후는 전날 경기를 마친 후 "900안타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1000안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정후는 현재 타율 0.298(57타수 17안타)에 12타점 6득점을 기록 중이다. 이는 팀내 최고 타율, 최다 타점이다.

1000안타를 향해 가는 이정후는 오는 1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출전한다.

뉴스



프로야구 FA 이적생 초반 성적표는?...박건우만 A

'150억' 나성범, 타율 0.277에 1홈런 손아섭·박병호 어울리지 않는 성적 박해민, 1할대 타율 기록...기대이하

NC 다이노스의 박건우(32)를 제외하고 FA 이적생들이 품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성범(33)은 2021시즌을 마친 후 KIA 타이거즈와 6년 총액 150억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NC 다이노스는 나성범을 놓친 후 두산 베어스에서 FA 자격을 얻은 박건우를 6년 총액 100억원에 잡았고, 롯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손아섭(34)을 4년 총액 64억원에 영입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주전 외야수였던 박해민(32)은 LG 트윈스와 4년 총액 60억원에 계약했고,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타자였던 박병호(36)는 KT 위즈와 3년 총액 30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KIA는 미래에 중심타선을 이끌어줄 선수가 필요했고, 정확성과 장타력을 겸비한 나성범이 적격이라고 판단해 거액을 투자했다.

나성범은 아직 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17일 친정팀 NC전에서 올해 마수같이 홈런을 터뜨리며 타격감을 조율했다. 나성범은 올해 1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7(47타수 13안타)에 1홈런 8타점을 기록했다. 팀내 최고 타율에 최다 타점을 기록 중이다. 출루율은 0.393으로 높다.

아심차게 박건우와 손아섭을 영입한 NC는 시즌 초반 최하위(3승 11패)에 머물러 있다. 나성범이 떠났지만, 박건우와 손아섭이 타격에서 빈자리를 메우고 외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박건우는 팀의 기대대로 올 시즌 타율 0.327(55타수 18안타)에 1홈런 12타점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 강한 타격 능력(득점권타율 0.400)을 보이며 NC의 주축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박건우는 안방 같은 잠실구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LG와의 3연전에서 무려 14타수 7안타의 맹타를 터뜨리기도 했다.

손아섭은 시즌 초반 극심한 타격 슬럼프를 겪었지만, 최근 9경기에서 6차례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0.356의 고타율을 기록하며 타격감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C의 팀타율은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1할대(0.198)에 머물러 있다. 14경기에서 고작 33점을 올리는데 그쳤다.

KT는 박병호의 장타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병호는 올 시즌 2홈런을 터뜨렸지만, 타율이 0.237로 낮다. 삼진은 14개를 당했는데, 이는 KT 타자 중 가장 많다. 타석에서 과거와 같은 위압감이 사라졌고, 득점권타율도 0.200으로 매우 낮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 KT(3승 10패)는 타선에서 강병호의 부상 공백과 함께 외국인 타자 헨리 라모스, 박병호의 부진 등이 맞물려 8위에 머물러 있다.

LG 유니폼을 입은 박해민의 성적이 가장 좋지 않다. 박해민은 올해 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167(54타수 9안타)로 타격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수비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타격감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LG 류지현 감독은 아직 시즌 초반이라면서 박해민의 타격이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고 믿음을 보였다.

류현진, 10일짜리 부상자

명단 올라...팔뚝 통증

오클랜드전 4이닝 5실점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35·토론토)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MLB.com은 18일(한국시간) 류현진이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다.

MLB.com은 "류현진이 전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 이후 왼쪽 팔뚝 통증을 호소했다. 검진 이후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고 알렸다.

류현진은 두 번째 등판이었던 오클랜드전에서 선발 4이닝 동안 6피안타 5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포심 패스트볼은 최고 구속 90.2마일(약 145.2km), 평균 구속 88.7마일(142.7km)로 구속 저하가 뚜렷했다.

앞서 1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개막전에서도 3⅓이닝 5피안타(1홈런) 2볼넷 4탈삼진 6실점으로 주춤했다. 2경기 평균자책점은 13.50이다.

오클랜드와 경기 이후 스포츠츠 캐스터 헤이즐 메이는 "류현진이 왼쪽 팔뚝 통증을 느꼈다. 현재 치료 중인데 경과에 따라 내일 오전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며 부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MLB.com은 "류현진의 향후 복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



2022 광주 요넥스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단식 정상에 오른 전혁진. (사진=대한배드민턴협회)

한국 배드민턴, 코리아마스터즈 금메달 3개 획득

한국 배드민턴이 2022 광주 요넥스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3개 종목 정상에 올랐다.

전혁진(요넥스)은 17일 광주 광주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나라이오가 고다이(일본)를 세트스코어 2-0(21-17 21-16)으로 꺾었다. 2017년 이 대회 첫 우승을 경험한 전혁진은 5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국내 선수들의 맞대결로 치러진 여자복식에서는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

행) 조가 백하나(MG새마을금고)-이유림(삼성생명) 조를 2-0(21-17 21-12)으로 제압했다. 김소영은 2013년 장예나(김천시청)와 우승한 이후 9년 만에 코리아마스터즈 금메달을 맛봤다. 공희용은 첫 우승이다.

남자복식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김사랑(밀양시청)-김기정(당진시청) 조가 중국의 리우유첸-오우쉬안이를 조를 2-0(21-14 21-16)으로 따돌렸다. 2013년, 2015년에 이은 세 번째 우승 합작이다.